

투데이 칼럼

취업 전선의 탈북민

요즘 취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취업의 문은 더 냉혹하다.

정착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 격차로 인해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탈북민이 적지 않다.

여기서는 스무 개가 넘는 각종 직종별 교육으로 실질적인 취업을 돕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땅을 밟은 어느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취업을 포함한 기초교육 3개월 과정에 나섰다.

해당 탈북민은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중장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목표다.



정복규 논설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 탈북민에게는 아직 낯설다.

탈북민은 "북한은 졸업하면 집단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아닌 탄광이나 광산 등지에 배치된다.

20년 동안 탈북민을 접한 어느 굴삭기 교육 강사는, 탈북민들이 직업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될 때 강사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하나원은 효율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2020년 6월 직업교육관을 새로 열었다.

미용실을 방불케 하는 곳은 미용 교육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다.

직업교육관이 생기면서 바리스타 과정 등 이전보다 교육 직종이 더 늘어났다.

이론 강의 뒤엔 실습도 이뤄진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아쉬운 대로 인형을 활용한다.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교육생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결국 하나원에 다시 들어와 취업 재교육에 집중하기도 한다.

라고 공개한 바 있다. 또 탈북민은 어렵게 취업해도 일용직 비중이 높다.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31.3개월이다.

이른 언어와 문화 차이, 업무 숙련도 등이 이유로 꼽힌다.

북한의 태도나 도발 등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교육생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낮선 땅에서 자립의 첫발을 댄 탈북민들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지만 희망 섞인 포부를 밝힌다.

이분은 더 길게 뿌리내릴 수도 있을 줄 더 세심한 미중보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경북 김천시 규모 3.2 지진

12월 1일 오후 3시 17분에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상세 주소는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 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73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

상의 지진은 7차례 일어났다. 한편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 발생하는 편이다.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 10회가 발생했다.

1999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진 관측망의 확충과 지진 관측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진의 진원 깊이는 5~15km로 얕은 편이다.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판은 남부에서 인도판이 밀어붙이고, 동부에서는 태평양판 및 필리핀판이 밀어붙인다.

전주MBC 카타르 항공 공급계약

전주MBC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11월부터 총 6개월간 자사 다큐멘터리 '꿈미 오디세이'를 카타르 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공급한다.

카타르 항공은 국영 항공사로 전 세계 100곳이 넘는 나라에 취항중이며, FIFA 월드컵 TM 공식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꿈미 오디세이'는 2020년 전주MBC가 제작한 4부작 다큐멘터리다.

이번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공급되는 콘텐츠는 '꿈미 오디세이' 제1부 '니들이 전라도 손맛을 알아?'와 제2부 '전주 디미방'으로 전라도 음식의 손맛, 그리고 그 정체를 살살이 분석한 작품이다.

전주MBC는 카타르 항공 계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취항하는 브리시타에어(영국항공)와 오만의 국영 항공사 오만항공과도 6개월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 전라북도의 음식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카타르 항공은 월드컵 기간 동안 잊지 못할 기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맞춤형 월드컵 테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드컵 기간 한정 기내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TV 서비스, 승객 편의 시설 및 향상된 메뉴를 준비했다.

항공기에서도 축구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FIFA에서 영감을 받은 안티마 카사르와 베개로 장식했다.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에게는 월드컵 경기를 좀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경기 티켓 및 기타 필수품 후드가 편리하게 설계된 FIFA 한정판 에어비티백이 제공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국민 만찬 전 기념 촬영하는 마·불 정상 부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오른쪽)와 에마뉼엘 미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민 만찬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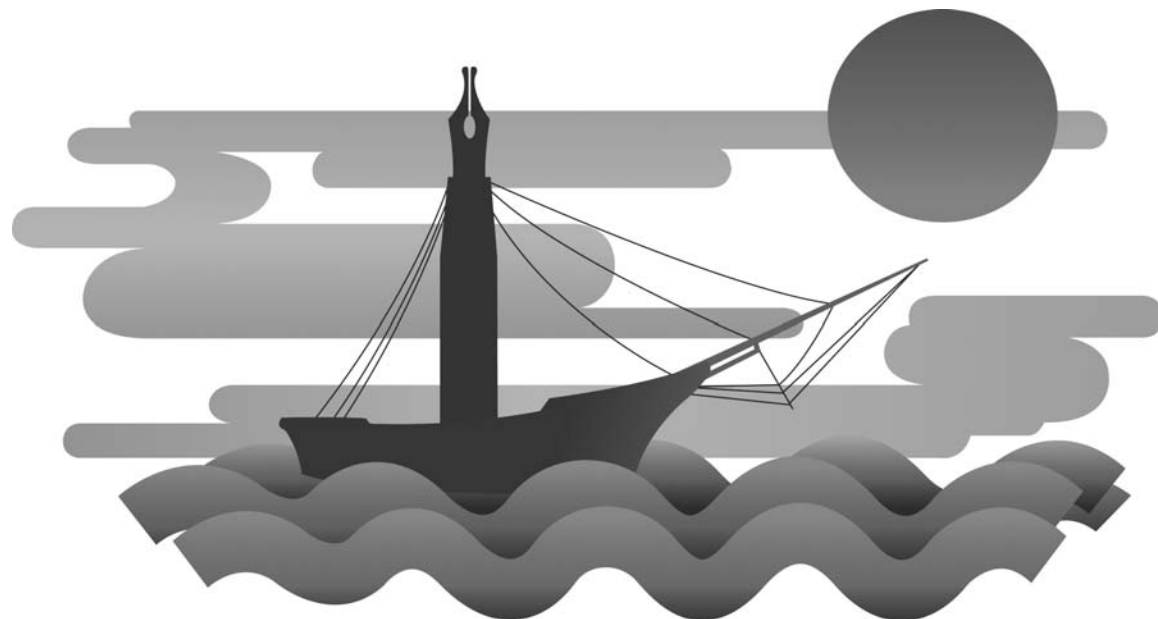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피난 열차 탑승하는 94세 헤르손 할머니



지난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올해 94세 된 엘리자베타 할머니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피난용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